

이라크 전쟁에 따른 유가전망

□ 전쟁발발이 확실해지면서 유가 하락세로 돌아서

- 지난 3월 17일 브렌트유의 런던거래소 시세는 장중 배럴당 88센트, 전일 대비 1.62 달러나 하락한 29.25 달러를 기록했음.
- 이날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전쟁에 대한 UN의 결의안 표결을 포기함에 따라 전쟁발발이 확실해지면서, 시장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시장을 지배해 왔던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받아들였음.

기나 거꾸러 다시 거래시 바바라면서 조이 서지구트이 비츠으 단...
제유가가 급락했던 사례에 비추어 투기적 거래자들이 현물매도에 나서면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됨.

□ 단기전의 경우: 일시적인 유가불안 우려

- 이번 전쟁은 미국의 완벽한 승리로 단기간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 경우 전쟁기간과 전후 원유공급이 정상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향후 3개월 정도 유가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전쟁기간 중 후세인이 자국내 유전 파괴와 쿠웨이트 등 주변국 유전 공격에 나설 경우 일시적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40~45달러 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곧바로 미국 등 서방선진국들이 전략비축유(SPR) 방출에 나섬으로써 유가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장기전의 경우: 배럴당 80달러까지 폭등할 듯

- 전쟁이 장기화되고 민간인 사상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전황이 미국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도 그만큼 심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일부 과격한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공급량을 줄이는 등 석유를 무기화하고 나선다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폭등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장기전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석유 무기화 전략도 산유국들의 일사불란한 행동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유가불안이 OPEC 등 산유국의 장기 가격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유가폭등의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국제유가, 공급과잉으로 장기적으로 하락세 지속

- 국제유가는 이미 정점에 도달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급과잉이란 구조적인 요인으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전후 이라크 석유부문으로 대규모 투자가 집중될 것이며, 2005년경이면 이라크의 원유생산능력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일산 400만 배럴까지 확충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나이지리아, 리비아, 알제리 등 쿼터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OPEC 회원국들의 생산량 증가, 새로운 원유 공급원으로 부상한 러시아와 카스피해 연안지역,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공급량 증가 등도 지속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2006년경 세계 전체의 공급초과량은 일산 14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02년 하반기부터는 뚜렷한 유가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가 배럴당 15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국제유가^{주)} 추이

단위: 달러/배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유 가	24.97	26.21	19.58	17.37	16.38	15.48

주: 브렌트유 기준 연평균 가격.

자료: EIU.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